

푸른방송(주) -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업무협력 간담회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과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11일(수) 오전 10시 30분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업무협력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의 내용은 공단 소개, 법무보호사업 안내, 업무협력 순으로 진행됐으며, 푸른방송 조현수 대표이사와 푸른방송 실무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임동문 대구지부 지부장, 김도훈 법무보호과장 외 법무보호공단 실무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그간 푸른 방송의 협력에 대한 감사와 향후 진행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김도훈 법무보호과장은 “법무보호공단은 사회에 안 좋은 인식 때문에 홍보가 힘들었지만, 푸른방송을 통해 법무보호공단이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에 푸른방송 조현수 대표이사는 “푸른방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를 끝으로 보호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와 식당, 체력 단련실 등을 방문해 행사를 마무리했

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 등이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푸른방송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3월 21일

푸른방송 대회의실에서 보호 대상자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가 있다.

이권수 객원기자



푸른방송(주) - 영남연합포커스, 업무협약

푸른방송과 영남연합포커스가 지난 20일(금) 언론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현수 푸른방송대표이사와 임동욱 방송팀장, 김진우 영남연합포커스 대표이사와 김종실 국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활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이사는 “영남연합포커스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보 제공으로 언론사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영남연합포커스 대표이사도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기관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언론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동욱 객원기자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이사

(사)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 선임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이사가 지난 5일(목) (사)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인준을 거쳐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현재 대구시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장인 조현수 회장은 대구 푸른방송 그린웨이즈라는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 실업팀을 창단하고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 스키장을 운영하며 선수 육성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지난 7월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남여 중별 선수권대회에서 종목 최초로 경기 생방송 중개와 드론촬영, 형식 없는 개·폐회식 등을 선보이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조현수 (사)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은 “대한수상스키웨이크 스포츠협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선수 육성 및 보호 정책을 강화, 또 전임 회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이어받아 협회 운영의 자정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상스키와 웨이크 스포츠 종목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수 회장은 올해 말 제22대 회장으로서 정식 회장선거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인 국제대회 참가 적극지원, 선수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강화, 지방협회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이세경 객원기자

